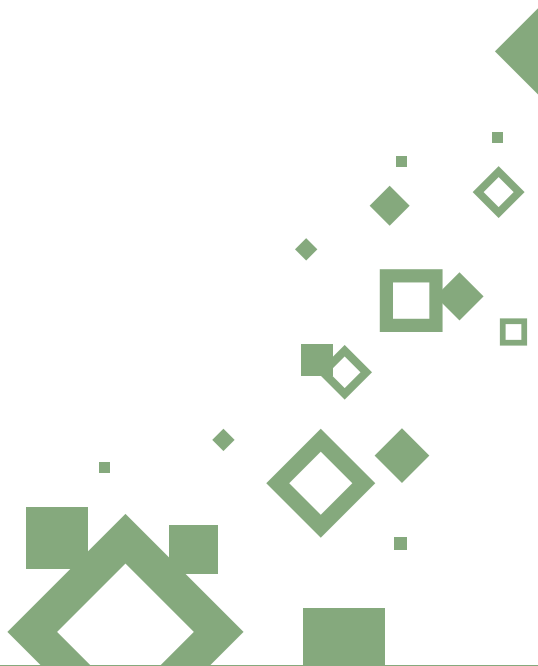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소수서원



목차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영주 소수서원

01. 영주 소수서원 개요	23
02. 강학	30
03. 제향	37
04. 교류와 유식	43

영주 소수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6
-------------------	----

01.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02. 서원의 이해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업무 총괄 ◉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 ◉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 ◉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 ◉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 ◉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 ◉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 講會	향사 ^{享祀} 를 지낸 후, 「백록동규 ^{白鹿洞規} 」나 「여씨향약 ^{呂氏鄉約} 」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講生} 이 강장 ^{講長} 앞에서 진강 ^{進講} 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 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읍례 ^{揖禮}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읍 ^揖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陳設} :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 ^{瞻拜} :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 ^{相揖} :서로간 읍례를 거행함-승당 ^{升堂} :당에 오름-독규 ^{讀規} :규약을 읽음-배독 ^{拜讀} :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 ^{進講} -예필 ^{禮畢} 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白鹿洞規} , 사물잡 ^{四勿箴} , 심잠 ^{心箴} , 경재잠 ^{敬齋箴} ,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제



성생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교류와 유식

- 교류(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제향-강학-유식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공간 구분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광성 필암서원

01. 영주 소수서원 개요

1) 소수서원의 역사

(1) 건립

건립배경

- 고려 후기 학자 안향(安珦, 1243~1306)이 원나라에서 견학한 바를 토대로 성리학을 들여와 국내 진흥에 힘씀
- 안향과 그 아들과 손자가 독서하였던 숙수사(宿水寺)가 폐사되어 터만 남는 등 유풍(儒風)의 퇴락
- 주세붕은 주자학의 전도자로 자임하였기에 안향을 봉향하는 사묘를 건립함으로써 향촌사회에 주자학을 천명하여 보급, 확산 기도

주세붕의 서원 건립 동기

-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기 위해
- 학문을 돈독히 하기 위해
- 사당을 세워 현인의 덕을 숭상하기 위해
- 유학의 도의나 문화를 흥기시키기 위해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건립된 서원 ◦ 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 ◦ 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 ◦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 ◦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 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 ◦ 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 ◦ 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 ◦ 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 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

이황과 서원 사액

- 서원은 선비가 한적한 곳에서 천하의 의리를 살펴보면서 덕을 쌓고 인^仁을 성숙시켜 학문에 힘을 얻게 되는 곳이기에 송나라 태종^{太宗}, 재위 976~997, 이종^{理宗}, 재위 1225~1264 등이 편액을 하사하였음
- 주세붕에 의해 서원이 세워졌지만, 이것이 왕명에 의하여 발급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음
- 서적과 편액을 내려주고 토지와 노비를 정해주며 지방관으로 하여금 서원을 지원하도록 요청

(2) 사액

소수서원 사액

- 1548년 이황^{李滉}, 1501~1570의 풍기군수 부임
- 1549년 이황이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 1499~?에게 글을 올려 요청
 - 송나라의 고사를 따라서 서적과 편액을 하사해줄 것
 -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해줄 것
 -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서원을 일으키고 배양하는 방법과 공급하는 물품을 감독하되 가혹한 법령과 번잡한 조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할 것
- ‘소수^修’라 함은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닦아 하였음”이란 뜻으로 학문 부흥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명종임금이 손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
- 1550년 2월 영의정 이기^{李芑}, 1476~1552, 좌의정 심연원^{沈連源}, 1491~1558 등이 백운동서원에 편액과 서적 내려 보낼 것을 아뢰

서원 창건 반대 여론

- 1541년 큰 가뭄, 1542년 큰 기근으로 민생 고통 가중
- 안향^{安珦}, 1243~1306은 이미 국학과 지방에 모신 사당이 있음
- 교육 기능은 향교가 이미 담당
- 사당을 세우더라도 존속이 어려움

건립 과정

- 1541년 7월 주세붕, 풍기군수 부임
- 1542년 8월 안향이 학문을 익히던 숙수사^{宿水寺} 터에 사묘^{祀廟} 터 닦음
- 1543년 2월 문성공묘 준공
- 1543년 4월 서원건립 착수
- 1543년 8월 서원(강당, 동재, 서재) 완공

초기 재정 마련

- 진사 황빈^{黃彬}의 미곡 기부
- 터를 닦다가 나온 구리 300여 근을 서울로 보내 서적 구입
- 경상감사 임백령^{林百齡}, 1498~1546이 지급한 어염^{魚鹽}
- 경상감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지급한 염곽^{鹽藿}
- 안향의 11대손 경상감사 안현^{安瑄}, 1501~1560이 각 고을에 서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 분담 요청

- 1550년 4월 대제학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지은 소수서원기와 국왕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이 직접 쓴 현판이 내려옴

소수의 의미

- 학문의 도가 쇠퇴하여 강구되지 못하니 오래됨
- 배우고서 그 이치를 강구하여 밝히지 않으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공경함으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음
- 의(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도 없음
- 학문의 도를 이어(紹) 자신을 다스리는(修) 것이 소수

(3) 운영

소수서원 원규

- 최초의 서원 운영규정
-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폐지해서는 안 됨

① 근사(謹祀): 제사를 공경히 할 것

- 공경히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도 흠향하지 않음

② 예현(禮賢): 어진 이를 예우할 것

- 예우하지 않으면 어진 이가 이르지 않음

③ 수우(修宇): 건물을 보수할 것

- 건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짐

④ 비름(備廩): 창고(물자)를 채울 것

- 창고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탕진하게 됨

⑤ 점서(點書): 책을 점검할 것

- 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짐

운영 관리 [원규]

- 학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믿음직하고 언행과 몸가짐을 삼가는 사람 1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원장(院長)으로 삼음, 또 1인을 택하여 두 번째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
-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제들이 머물면서 폐를 끼치면 안 됨
 - 자제들의 하인과 자제들이 서원에 폐를 끼칠 수 있음
-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제들이 서책을 멋대로 하게 두어 서는 안 됨
 - 분명히 서적을 훔쳐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음, 다만 공부할 책이 없어 공부하려고 온 군자라면 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
- 활쏘기와 잔치하고 노는 것을 금함
 - 향음주례나 사문들의 규범에 맞는 음주하기에는 마땅하지만, 기생을 불러서 노는 것은 불가
- 서원을 지키는 네 집은 부역을 면하게 하고 관청에서 박탈할 수 없음
 - 서원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면 무인 고세에게 죄인이 될 것
-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 초시 입격자) 순으로 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을 향한 태도와 행동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면 유사가 사문에게 아뢰고 맞이

- 서원은 어진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렸으니 신중하게 선비를 받아들이는 것
- 서원 입원생 자격 기준을 두고 자격을 없애자는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음
- 『입원록入院錄』을 별도로 두어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가 반드시 스스로 성명, 들어와서 머무른 연·월·일을 기록하게 함

재정 관리 [원규]

- 사문斯文은 서원 통합 점검, 유사有司는 서원 살피는 일 주관
- 학전學田에서 나온 것은 매년 11월 원장이 3권의 책을 만들어 1권은 관官에 알리고 1권은 사문斯文에 보고하며 1권은 서원에 유치
- 보미寶米는 원금 보존, 이자만 사용, 매년 정월 3권의 책에 기록하여 보고
- 목적: 서원은 반드시 어진 이를 양성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함

2) 소수서원의 공간 구성

소수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영주시 위치
- 백운동白雲洞: 흰 구름이 죽계 골짜기에 항상 가득한 모습이라는 의미 담김
- 죽계천竹溪川을 둘러싼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

- 낮은 구릉성 산지 영귀봉靈龜峯이 배산, 죽계 건너편 연화봉蓮花峯
- 대부분 건축물이 죽계천 서쪽에 위치, 죽계천 건너편 연화봉 조망하며 자연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

소수서원의 입지 특성

- 선현인 안향이 학문을 익히던 곳에 입지
- 오래된 마을에 인접
-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건물배치도

- 지형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전체를 구성
- 강당 중심으로 재사齋舍 배열, 그 뒤 한쪽에 사당 위치



02. 강학

건물

명륜당(明倫堂)

- 목적: 원생이 모여 강론하고 통독하는 강학 공간, 모임 갖는 장소
- 창건연도: 1543년
-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 사방 둘레에 너비 1M 정도의 툇마루 설치
- 정면 좌측 3칸이 마루, 우측 1칸에 방 2개 설치

명륜당 관련 유물

백운동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백운동 白雲洞, 만력 萬曆 경술년 庚戌, 1610 봄에 새김
- 죽계 건너 암벽에 새겨진 백운동 글씨를 탁본하여 모각

소수서원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소수서원 紹修書院, 명종 明宗, 재위 1545~1567 글씨 御筆
- 가정 嘉靖 29년 1550 4월 일, 임금께서 하사 宣賜

문성공 향사 집사분정판

- 향사 준비 과정에서 역할과 업무를 나누는 판
- 강당 정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매 향사 시마다 한지에 묵서하여 분정판 아래에 붙임
- 술잔 올리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부터 제수 祭需를 차리는 진설까지 나열

진설	도진설	사생	자성	제물유사	학생	전작	봉작	봉로	봉향	사준	찬인	알자	찬자	축	종헌관	아헌관	초헌관	향사집사	문성공
----	-----	----	----	------	----	----	----	----	----	----	----	----	----	---	-----	-----	-----	------	-----

* 특징: 특별한 소임이 없는 학생도 기록됨

입안(立案)-주세붕

- 가정 25년 1546 11월 일 작성
- 백운동 서원과 문성공 사당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을 염려하여 이를 토착인 4인으로 대체하고자 경상감사에게 요청
- 경상감사가 조정에 윤허 받음
- 이들에 대해 수령이라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지킬 것을 당부

입안(立案)-신종하

- 건륭 乾隆 15년 1750 정월 일 작성
- 옛 원규의 일을 회복, 4인을 수직 守直으로 삼았던 일을 되돌리는 내용
- 4인의 후손 중 역役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원에서 부릴 수 있도록 함

심잠(心箴)

- 남송의 유학자 범준 范浚, 1102~1151; 범난계 范蘭溪이 지음
- 심성을 수양하기 위하여 경계하는 내용
- * 잠箴이란 바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경계하라는 뜻을 가짐

경재잠(敬齋箴)

- 남송의 유학자 주희 朱熹, 1130~1200가 지음

- 1805년 결방이었던 신방新房을 중수하여 일신재로 명명, 연립 형태로 편액 달아 구분
-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직방재·일신재 관련 유물

직방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이항의 글씨를 모사하여 오던 것을 1720년에 다시 새김

일신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신방新房이었다가 1804년 보수 과정에서 3칸으로 새로 지어지며 일신재 편액 걸게 됨

학구재(學求齋)

- 목적: 학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곳
- 1730년 어린 학생을 위해 두었던 동몽재童蒙齋를 중수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학구재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학구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730년 방치되어 있던 동몽재를 중건하면서 현판 작성
- 중국에서 구해온 주희의 글씨를 모각하였다가 '학구성현學求聖賢'에서 앞의 두 글자를 취하여 본뜨고, 지락재의 '재'를 합쳐 만들

- 주희가 친구 장식張栻, 1133~1180의 <주일잠主一箴>을 보고 만듦
- 이항은 경재잠도敬齋箴圖를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
* 성학십도: 이항이 성학聖學의 개요를 열 폭의 도식圖式으로 설명한 글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남송의 유학자 진백陳栢: 진남당陳南塘이 지음
-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경재잠과 표리表裏를 이룸
- 이항은 숙흥야매잠도를 성학십도에 포함

사물잠(四勿箴)

- 남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지음
- 안회顔回, BC521~BC481가 스승 공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

백록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

- 남송의 유학자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원규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유유신의 오륜五倫을 기본으로 하는 서원 교육의 방향 제시

직방재(直方齋)·일신재(日新齋)

- 목적: 원장, 교수, 유사 집무실 겸 숙소, 각각 동재, 서재에 해당
- 창건 연도: 1543년

- 학생들에 대한 음식 제공, 서고 출입, 서당 참배자 예우에 대한 내용

시판(詩板)

- 성이민成以敏·조옥趙昱, 강침姜忱, 황준량黃俊良, 황시黃是, 이준李埈, 조사수趙士秀, 이감李勘·노경린盧景麟, 윤탁연尹卓然, 김진우金鎭雨의 시가 걸려 있음

장서각(藏書閣)

- 목적: 서적이나 목판 보관
- 창건 연도: 1543년 창건한 것으로 추정, 1819년 현재 위치로 이전
-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장서각 관련 유물

장서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비록 서원은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은 아니지만, 소수서원 초기에는 과거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며 인재 양성소 역할 담당

* 서원에 와서 거처하면 4, 5년도 안 되어서 모두 명사名士가 되었다는 평가

동몽재중건기(소수박물관 소장)

- 1854년 김증현金曾鉉이 순흥부사로 와서 서원의 원장으로 부임
- 사당 동쪽에 낡은 건물인 동몽재를 고쳐 짓고 나서 작성

지락재(至樂齋)

- 목적: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곳
- 일신재, 직방재보다 위계가 낮은 건물
- 1614년 풍기군수 이준李埈, 1560~1635이 건립
- 전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지락재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지락재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614년 이준이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말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에서 '지락' 두 글자를 취한 것

지락재 중수 상량문(소수박물관 소장)

- 세월이 오래되어 건물들이 쇠락해져 있어서 명륜당의 중수가 끝난 후 지락재를 중수했다는 내용
- 을미년에 강침姜忱이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기미년1799의 오기로 판단됨

백운동서원령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지락재에 걸려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칙

03. 제향

인물

배향 인물: 안향(安珦)

- 처음 이름은 안유安裕
- 조선 문종文宗, 재위 1450~1452의 이름이 향이라서 피휘避諱하여 초명으로 많이 부름
 - * 피휘: 공경과 삼가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왕, 성인, 선조의 이름의 획을 생략하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자는 사온四溫, 호는 회헌晦軒, 시호는 문성文成

배향 인물: 안축

-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는 문정文貞
- 저서: 『근재집謹齋集』, 『관동와주關東瓦注』
 - * 『관동와주』는 『근재집』에 수록되어 전함
- 『근재집』 세계도에 의하면, 안축은 안향의 족손 뽕
 - * 순흥 안씨 시조로 여겨지는 안자미를 1세로 하여 안향은 4세, 안축은 6세

배향 인물: 안보

- 자는 원지員之, 시호는 문경文敬
- 『근재집』 세계도에 의하면, 안보는 안향의 족손 뽕

교육과정

- 원생들은 5일에 한번 글을 짓고 10일에 한번 원임 앞에서 통독
- 원생끼리 글에 대해 서로 경독하고 글의 뜻을 강론
- 매일 시 1수를 지어 아침 식사 전에 올리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아침 식사에 참석할 수 없음
- 사서四書, 삼경三經 또는 육경六經을 근본으로 하고, 사학史學도 읽음

원생

- 서원에 상주하는 원생의 정원은 10명으로 규정
-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정원이 15, 20명으로 늘어나기도 함
- 나이, 들어온 날짜, 거리를 따져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양보,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에게 양보, 외지에서 온 사람을 위해 집이 가까운 사람이 양보
- 별도로 『입원록』을 비치하여 관리

전사청(典祀廳)

- 제향 관련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제물祭物을 준비하는 공간
- 1546년 임시청사 6칸 조성, 1587년 창건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전사청 관련 유물

전사청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의례

제향 원칙 [원규]

- 봄·가을 대향大享: 정례적으로 봄과 가을의 마지막 달 상정일上丁日에 하고, 일이 있으면 중정일中丁日에 거행
 - 마지막 달로 하는 이유는 대개 옛 성현의 제사를 봄, 가을 가운데 달로 하여 안향이 이미 배향되었기 때문에
 - 상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를 갖추
 - 유사가 7일 전에 사문에게 고하고 헌관과 집사를 미리 정함
- 치재致齋하는 날 헌관이 보관된 책을 점검하고 별을 찌이며, 담장과 집이 기울거나 틈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곡과 각종 물품을 세어 봄, 제삿날 사문들과 함께 살펴봄
 - * 치재: 제관이 된 사람이 재계하는 일

배향 인물: 주세붕

-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 남고南阜 등 시호는 문민文敏
- 저서: 『죽계지竹溪誌』, 『진헌심도進獻心圖』 등
- 문집: 『무릉잡고武陵雜稿』

건물

문성공묘(文成公廟)

- 1543년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세운 공간
- 봄, 가을로의 정기 향사와 비정기 향사가 이루어지는 제향 공간
- 서원 가장 서쪽에 위치
- 네 면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음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문성공묘 관련 유물

문성공묘 현판(소수박물관 소장)

- 1605년 주희의 후손 주지번朱之蕃이 사신으로 왔다가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쓴 것이라고 함
- 현재 편액은 원래의 것을 모각

문성공 시호, 시주(諡註) 현판

- 문성공 안향이 받은 시호의 뜻 풀이로 주지번이 썼음
- 도덕을 널리 들은 것을 일러 문文이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政事를 바로 세운 것을 일러 성成이라 함

소수서원 정기 제향 의식

① 향알(香謁)

-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에 행하는 알묘

② 정알(正謁)

- 매년 정월 초 5일에 알묘
- 새해를 맞이하여 선현께 드리는 의례

③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 음력 3월, 9월 초정일에 거행하는 의례
 - * 9개 서원 중 소수서원과 병산서원만 해당일에 봉행, 다른 서원은 2월, 8월 중정일에 봉행
- 제삿날이 국기일과 겹치거나 유고가 있을 경우 다음 정일로 미루어 행함

소수서원 향사 준비

- 원장과 각 유사는 3일 전에 입재하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 및 참례자는 이틀 전에 입사해야 함
- 제관들은 입재하면 파재할 때까지 서원 밖을 나갈 수 없음

① 개좌(開座)

- 절차는 개좌로 시작하여 파좌로 끝남
- 집례執禮의 명에 따라 제관들이 양쪽에 도열하여 상건례 후 착석

- 입재 인원 보고

② 경독(敬讀)

- 재계의 첫 순서
- 백록동서원규, 유학의 핵심을 요약한 잠언을 낭송

③ 집사분정(執事分定)

- 경독 후 향사에서 봉무할 일을 나눔
- 강당에 걸린 분정판을 헌관 앞에 놓고 문중, 연령, 학덕, 인품 고려하여 책임자 선정
- 원위치에 명단 부착

④ 제축(制祝)

- 초헌관을 모시고 문성공묘에 들어가서 축문을 쓰고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림
- 향사 올리는 연유를 고하는 것
- 축문 내용: 안향이 유학을 신봉하고 들여와 학교 세운 것을 칭송

⑤ 봉준(封尊)

- 향사에 올리게 될 술을 향아리에 담아 봉하여 넣는 의식
- 전사청에서 행함

⑥ 진설(陳設)

- 준비된 제수를 제기에 담아 법식에 맞게 상 위에 차리는 것

향사

- 자정이 지나서 봉행

① 상향례(上香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림
- 죽계사 3장 낭송(현재는 낭송하지 않음)

②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축문을 읽고, 축문 낭독이 끝나면 도동곡 수장 낭송

③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도동곡 중장 낭송

④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
- 잔을 올린 후 도동곡 종장 낭송

⑤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 신이 흠향한 음식을 초헌관이 맛봄

⑥ 철변두(撤籩豆)

- 제상의 제물을 거둠

⑦ 망예례(望瘞禮)

- 축문을 땅에 묻는 의식

⑧ 음복례(飲福禮)

- 파제일 아침 7시경 강당에서 음복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차례로 술잔을 듦
- * 소수서원의 의례는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

04.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 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교류와 유식 관련 유물

심원록(尋院錄)

- 소수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방명록
- 성명, 본관, 방문 일자, 관직 등 기재

경렴정(景濂亭)

- 위치: 서원 남쪽 담장 밖에 위치
- 서원 건립 초기에 지어진 건물
-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정자
- 주세붕이 북송의 성리학자인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를 경모(景慕)하는 뜻에서 만들

경렴정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 참고

경렴정 현판

- 입구에 걸린 것은 이황, 내부에 걸린 것은 황기로(黃耆老)의 글씨로 전해짐

시판(소수박물관 소장)

- 주세붕, 이황의 5언시, 7언시를 비롯하여 최응(崔應), 김응조(金應祖)·오건(吳健), 안현(安玄)·황효공(黃孝恭)·안공신(安公信), 황시(黃是), 황응규(黃應奎), 황준량(黃俊良), 황섬(黃暹), 강침(姜忱), 정한(鄭澣), 유세명(柳世鳴), 홍우정(洪宇定)의 시가 걸려 있음

취한대(翠寒臺)

- 위치: 죽계천 건너편 연화봉 아래 소나무 숲에 위치
- 1550년 건립, 1986년 신축
- 이황이 경자바위 윗부분에 터를 닦아 대를 쌓고 이름 붙임
- 푸른 연화산의 기운과 맑은 죽계천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

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에서 송취한계(松翠寒溪)에서 따옴

-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

영주 소수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최초의 서원

- 1543년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주도 하 지역 사림이 함께 건립한 최초의 서원
- 최초로 서원 교육 및 제향 관련 규정 도입
- 1550년 ‘소수’라는 사액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
- 사우, 강당, 재사 등 서원 초기 건축형식 수립
-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 한국 서원 입지의 전형
- 제향 인물을 지역 선현으로 하는 전통 시작

주요 특징

- 구성 및 입지

- 강당·사우·재사·장서각 등 한국 서원 건축물 구성의 기본 요소를 제시함. 죽계천이 흐르는 계경에 입지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부합한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된 입지의 전형을 보여줌

- 특징

- 한국 서원중에서 최초로 건립·사액되었으며, 한국 서원 교육·제향의 전형을 제시함
- 도동곡(道東曲) / 다른 서원과 달리 제향에 가곡을 부름. 도동곡은 안향에 의해 도(道)가 동방(東方)인 한국에 전래되었음을 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체가(景幾體歌)의 형식임

MEMO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소수서원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